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윤택림, 아르케, 2010)

김 지 수*

‘구술사’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술성’이다. ‘서술성’과 ‘쌍방향성’ 역시 문헌자료와 대비되는 구술사만의 특징이며, ‘밑으로부터의 역사쓰기’ 혹은 ‘주류역사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스스로 역사쓰기’와 같은 정의로도 표현해볼 수 있다. 구술사에 대한 특징과 정의는 어김없이 구술사에 대한 의구심과 학문으로서의 인정범위와 같은 문제들도 떠오르게 한다.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는 이러한 의문과 의심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책으로,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구술사와 오해하고 있는 구술사의 학문적 이력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본서이다. 특히 이 책은 구술사에 입문하는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책이며, 원문 읽기에 울렁증이 있거나 게으른 이들에게 ‘단기 속성식’ 텍스트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는 10편의 논문을 네 개의 주제로 배치하고 있다. 첫 번째 “구술사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는 톰슨, 바시나, 포르텔리와 같은 구술사 거장들의 대표 논문을 통해 구술사에

* 용산구 기록연구소

대한 정의, 문헌자료와의 구분 그리고 구술사가 갖는 특징 등을 살펴 보고 있다. 두 번째 “기억과 역사” 부분에서는 기억이 구술사에서 갖는 의미, 기억과 구술과의 관계를 다룬 바슈텔과 노라의 논문을 다루고 있다. 세 번째 “대중기억” 부분에서는 대중기억의 형성과 매체의 역할에 대한 논문들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 “기억의 정치학”에서는 유대인, 스페인, 이탈리아의 구술사 사례연구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동안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랐던 작업’을 ‘부지런한’ 편역자가 성실히도 해주었다는데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다. 구술사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기억의 문제, 대중기억과 매체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문들을 선별한 편역자의 학문적 스펙트럼에서 연륜과 구술사에 대한 애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마지막 사례연구 논문의 텍스트 분석은 현재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반성하고 주의 깊게 볼 대목이 아닌가 싶다. 텍스트 분석은 얼마나 세심히 관찰하였는지에 대한 성실도와 함께 면담자의 학문적 내공과 탄탄한 기본기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구술자의 내면을 왜곡 없이 풀어낼 수 있는냐의 문제는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학제간 연구 풍토와도 관련이 있다. 우리가 외국 논문을 찾아보고 번역서까지 출간하는데에는 그들의 연구 역사가 깊고, 다양한 사례연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더불어 우리와는 다른 학문 풍토에서 자유롭게 쓰여진 신선한 아이디어의 논문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른 학문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구술사는 오늘날 그 쓰임이 다양하다. 인류학, 사회학, 사학, 교육학, 기록학 등의 학문분야는 날로 넓어지고 있으며, 구술자료를 활용한 만화, 다큐멘터리,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유연한 구술사 연구자라면 한 가지 학문분야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책은 10편의 대표논문을 발췌·번역한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논문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편역자의

친절함이 한편으로는 독자의 이해를 해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발췌’와 ‘번역’ 때문이다. 전문을 모두 읽고 있지 않고 특정 부분만을 잘라 옮겨 놓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당연한 오류, ‘맥락과악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여기에 번역서가 빚는 당연한 오해가 더해진다. 이탈리아어를 영어로 1차 번역하고, 영어로 된 1차 번역서를 저자가 2차 번역하며, 독자들은 발췌된 논문을 자신의 것으로 3차 번역하게 된다. 마치 녹취문을 이용한 자료를 재인용하면서 원래의 의미와 멀어지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처럼 말이다. 발췌한 내용의 선별이나 번역의 완성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발췌와 번역의 피할 수 없는 한계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독자들은 이 같은 한계를 염두에 두고 텍스트를 읽어나가기를 바라며, ‘가이드’로서의 가치를 십분 활용하기 바란다.

최근 몇 년 사이 구술사 연구는 크게 성장하였다. 개인 연구자들이나 기관은 물론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구술사 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단체에서 구술사 강연의 장이 펼쳐졌다. 최근 대두되는 이슈는 구술자료의 활용, 관리 더 나아가 구술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논의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구술사 수집에 관한 사례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 마을 농부 B씨의 생애사 연구”와 같이 장소와 대상이 바뀌었을 뿐 같은 틀을 유지하는 논문들이 부지기수다. 즉 지금까지 한국 구술사 연구는 양적 팽창을 해왔던 것이다.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는 ‘구술사 연구’의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술사’를 하나의 학문분야로 인정하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사례 나열에서 진화한 학문적 의미, 본연의 가치, 현대사회에서 구술사가 갖는 의미와 나아가갈 방향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는 그 출발점에 서 있다. 논문 전체를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구술사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후속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진지한 논의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구술사가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학문풍토와 구술사 연구자의 역량강화를 기대해 본다.